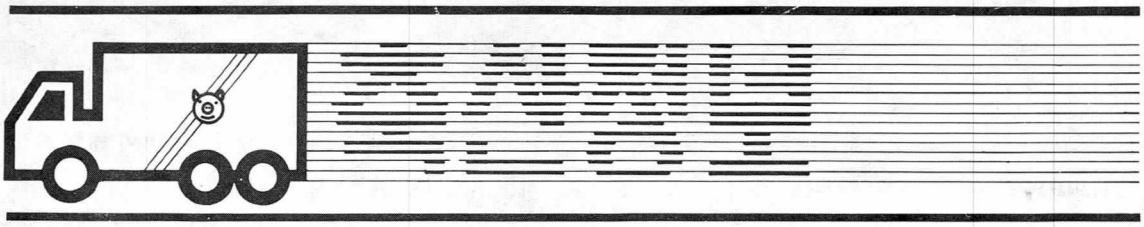

양돈업 신규허가 금지 해제

-농림수산부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지침 개정

농림수산부는 11월 2일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 지침(농림수산부고시 제 90-4, 90. 1. 20)을 개정, 그동안 금지해 왔던 양돈업의 신규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농촌의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돼지 사육호수와 두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장기적으로 시장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돈산업을 전업농 위주로 사육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양돈업의 신규허가 제한을 해제해 축산업에 대한 구조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양돈업 허가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양돈농가 등이 양돈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돈 1,000두까지로 규정된 허가상한선과 재벌기업의 축산업참여 금지 조항은 하등 변동이 없다.

농림수산부의 이번 조치는 돼지가격이 생산비를 크게 웃도는데도 불구하고, 양돈농가들이 수입개방과 폐수처리단속, 인력난 등으로 돼지 사육을 기피, 사육두수가 적정선을 유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부 고시 제90-47호

농림수산부 고시 제90-4호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0년 11월 2일, 농림수산부장관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 지침등 개정고시〉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신규허가 금지등"을 "허가상한선 운영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한다.

• 부칙 :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표1)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 지침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신규허가금지등) ①양돈업의 신규허가는 이를 금지한다.	제2조(허가상한선 운영등) ①삭 제

"서울 3개 도축장 시외로 이전한다"

-축협공판장, 협진식품은 내년 이전

축협공판장과 협진식품등 2개의 도축장이 내년중 시외로 이전되고, 마장동 소재 우성농역도 연차적으로 폐쇄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9일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내 3개 도축장을 없애고 산지에서 도축하여 서울시내에는 지육형태로만 반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농림수산부와 협의, 현재의 계류·도축·판매과정이 한곳에서 이뤄져 비축기능이 없는 유통구조를 개선해 계류·도축과 판매·비축의 두 기능으로

나눠 권역화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중에 가락동의 축협공판장의 도축·계류장을 경기도 광주군 경안지역으로 이전시키기로 하고 이미 부지를 확보, 현재 공업배치법상 수도권에는 도축장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개정을 상공부에 건의했다.

한편 마장동 우성농역은 현재 농림수산부가 추진중인 축산물 유통구조 권역화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외이전이 추진된다. 이 권역화는 전국의 179개 도축장을 연차적으로 통폐합, 65개로 줄이고 가축시장도 311개소에서 150개소로 축소, 전국을 20개 권역으로 나눠 산지에서 계류·도축을, 시내에서는 저장·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양축농가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지금까지 도축장이 산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 있는 관계로 운송시의 체중감량, 운송비 과다, 오염발생, 장기계류 등으로 큰 불편과 함께 손실을 보아왔다.

한편 현재 서울에서는 하루에 소 1천2백마리, 돼지 9천마리가 소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소 3백50마리, 돼지 6천마리 정도가 서울시내 3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장,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강력 추진키로

-통치권자와의 면담도 추진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지난 10월 15일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위원회를 열고 배합사료 등 축산원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단체장 대표단이 통치권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부가세를 농어촌발전기금에 편입하여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다시 관계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또 이들은 관련부처 장·차관을 축산관련단체 대표 조찬회에 초청하여 정부에서 앞장서서 해결토록 촉구하고 실무협의회에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키로 결정했다.

한편 10월 17일 열린 영세율적용 추진 실무대책회의에서는 단체장들이 결정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실무대책회의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정부,국회(재무위, 농림수산위)에 제출하고, 금명간 농림수산부 장·차관을 초청하여 농림수산부(안)을 수정토록 설득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10월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농단협, UR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11월 11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1천만명 목표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 강춘성)는 UR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6일 열린 서울역광장에서의 UR농산물협상저지 서명운동을 계기로 11월 11일 오전11시 전국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UR저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농단협소속 단체 실무자들은 지난 10월 25일 축산회관내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10월 26일 UR저지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약칭 : UR공대위) 결의대회를 갖고, 이를 계기로 UR공대위와 연대하여 전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결정했었다.

서명운동은 농단협소속 모든 단체들이 시·군 혹은 면 단위로 연대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개최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모든 농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서명운동이 확산될 경우 전체농민단체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뿐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에 대처하는 일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단협의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1천만명을 목표로 계속 추진된다.

양돈업 허가업체 27개소, 등록업체 395개소

90년 6월 현재 양돈업 허가업체수는 27개소, 등록업체수는 395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허가업체수는 4개소가 줄고, 등록업체수는 49개소가 늘어난 수치다.

양돈업 허가업체는 경기도가 12개 업체로 가장 많고 충남 10개소, 전남 3개소, 인천·경남 1개소가 분포돼 있다.

27개 허가업체의 총허가모돈수는 22,290두이며, 이들 업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두수는 227,318두이다.

한편 양돈업 등록업체는 경기도가 155개소로 가장 많고 충남 70개소, 경북 47개소, 경남 37개소, 전북 26개소, 전남 24개소, 강원 23개소 충북 8개소 제주 4개소, 인천 1개소 순이다.

이들 등록업체의 등록모돈수는 77,928두이고 총 사육두수는 613,709두이다.

지난 6월 현재의 허가업체의 모돈수는 작년 12월에 비해 3%가 줄었고, 등록업체의 모돈수는 26%가 증가해 대규모업체는 사육두수를 줄이고, 전업규모의 농가에의 사육두수를 크게 늘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종돈장 133개소

종돈업을 등록한 종돈장이 전국에 13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90년 6월 현재 종돈업·종계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133개의 종돈장이 있으며, 혈통을 등록한 종돈은 모두 19,991두(암 : 17,077두, 수 : 2,914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종돈장은 587동 247,723m^2의 종돈사를 보유하고 있다.

종돈장은 경기도에 33개소로 가장 많고 충남 22개소, 전남 18개소, 경남 16개소 등이다.

한편 종계업을 등록한 업체수는 231개소로 충남 69개소, 경기 65개소, 경북 24개소 순이다.

농림수산부 광주전남양돈조합 인가

지난 8월 8일 창립을 한 광주전남양돈조합(조합장 : 김태환)이 10월 10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광주전남양돈조합은 배합사료, 축산기자재등의 구매사업과 돼지계통출하, 육가공품판매등 판매사업, 지도사업 등을 하게 된다.

▲주소 : 광주시 서구 월산1동 23-21

▲전화 : (062)362-1525~6

농사연, 「농업해체위기와 한국농업의 재편방향」 심포지움 개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 : 장상환)는 11월 2일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농업해체 위기와 한국농업의 재편방향」을 주제로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6공화국의 농업정책과 한국농업의 전망(중앙대 김성훈 교수)」의 기조발제와 △현단계 농업구조 변화의 동향과 그 성격(동아대 이영기 교수) △농업구조의 재편과 농산물 가격(경기대 유기준 강사) △농업구조의 재편과 농지제도(경상대 장상환 교수) △농업구조의 재편과 생산조직의 발전방향(한신대 김현숙 강사)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서울시 돼지 연동가격 인하 고시

-정육 500g당 2,300원에서 2,100원으로

서울시는 최근의 돼지가격 하락에 따라 10월 22일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정육 500g당 2,300원에서 2,100원으로 8.7% 인하 고시했다.